



## 농림부

###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 방안 제시

농림부는 지난 5일 언론인 등 축산물 위생전문가 세미나에서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림부가 '9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축 질병공동방역사업단을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2002년까지 마무리 한다. 둘째, 육류 중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검사체도를 개선하여 2004년까지 국제규격위원회(CODEX) 및 선진국 수준까지 제고한다는 것이다.

'99년부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축장 위생관리지침서인 도축장 위생관리 요령(SSOP)를 더욱 발전시켜 도축, 도계장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수출 작업장에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축산물 검역 기능 강화대책 2단계를 '98년까지 마무리하고 2004년까지 3단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선 위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생검사기관을 수의검사(가칭)로 개편하여 국내·외 검사 업무를 통합 추진하여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 검사에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검사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검사보조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축산기술연구소

### 생명과학관 및 배합사료공장 준공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정선부)는 지난 15일 농림부·학계·축산업계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과학관 및 시험용 배합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총 공사비 38억5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생명과학관은 연건평 1천1백78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첨단 유전공학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전자 형질전환 우량가축 생산 연구, 수정란이식 기법을 이용한 가축개량, 고

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시험연구 및 새로운 산업화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4년여에 걸쳐 24억1천2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건평 2백29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 시험배합사료공장은 저비용 안전사료배합을 책임지게 된다.

1일 시험용 배합사료 생산능력은 20t이며 1회 최소 배합량은 200kg 규모로 27종(분말, 펠렛, 후레이크, 크랩블 등)의 시험용 사료생산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험배합사료공장은 최소비용 최대영양소 가공사료개발과 육질개선 환경친화형 특수목적 사료개발에 활용된다.

## 수의과학연구소

### 바이러스유전자증폭 검출진단법 개발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PCR) 검출에 의한 진단법을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진단법은 닭 전염성빈혈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색할 수 있고 백신에 의한 면역 실패원인이나 질병저항력 감소계군의 원인 규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일이고, 진단비용은 수당 3천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확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 한국가금학회

### 학회 회장단 회의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정선부)는 지난 31일 축산기술연구소(수원) 소회의실에서 학회 회장단 회

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11월 28일에 있을 정기총회 준비와 신진박사 특강 및 학술발표계획, 1996~1997 학회포상계획을 협의하였다.

## 미국 닭고기 '캠필로박터균' 오염보도

뉴욕타임즈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생산된 닭고기 중 70~90%가 캠필로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밝혔다.

캠필로박터균은 포유동물, 조류, 식품 등에 퍼져있는 인수공통 전염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경련, 복통, 혈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균은 섭씨 25℃에서 24시간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섭씨 70℃이상으로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96년 3월 미국 내 캠필로박터균이 문제되어 동년 12월까지 9백26건의 수입닭고기를 검사했으나 1건도 검출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닭고기 캠필로박터균 오염 여부를 미국대사관에 확인한 뒤 검역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하였다.

##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보고서 발표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피해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 세계 제3위의 소맥 수출국인 호주의 경우 동부지역 가뭄으로 '97년 생산량이 '96년에 대비 3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옥수수 생산량은 남아프리카공화국 12%, 태국 8%, 필리핀 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축산기자재업체 단합전진대회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심상무)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전북 남원 효산콘도에서 축산기자재업체 단합전진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는 신입회원사 회원증 증정, 주요경과사항 보고, 정보교환시간을 가졌고, 소기업연합회 오균현 사무총장이 축산 및 소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 미국대두협회 길그리프씨 본회 방문

미국대두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조세영)는 한국축산업의 실상을 파악키 위해 내한한 아시아 지역 길그리프 사업본부장과 조세영 한국대표, 축산사료실장 신인수 박사가 지난 7일 본회를 방문 최준구 회장과 양계업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이날 길그리프 본부장은 최근 한국양계산업의 생산 감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본회 최준구 회장은 현 미국의 자조금제도 운용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미국의 자조금제도는 매 5년마다 찬반 투표를 거쳐 실시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 가입 후 탈퇴시에는 10%만 환불되도록 되어 있어 전체 양계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불량수입식품 전년대비 31.2% 증가

복지부는 지난 6월말까지 식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중 각종 세균에 감염되었거나 썩어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9백13만8천달러어치로 작년 동기대비 31.2% 증가했다고 밝혔다.

'97년 상반기까지 수입된 축산물 중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은 5백93t(2백17만3천달러)으로 '96년 한해 동안 수입부적합 물량 2백37t(70만1천달러)보다 무려 3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불량 수입식품 반입 비율은 미국 42.8%, 중국 15.2%, 일본 9%, 이탈리아 5.6%로 나타났다.

## 원산지 둔갑 농축산물 판매 매년 증가세

지난 1일 농림부가 조사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실적에 따르면 '94년 이후 원산지를 속여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검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년 7월말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7천2백44건에 이르고 있고, 과태료 부과액이 68억7천7백만원에 달하였다.

미국산, 캐나다산 등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자는 일반정육점이 가장 많았고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행위로 적발되었다.

이 밖에 중국산 오리고기나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많았다.

###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적발현황

연 도	적발건수	과태료부과액 (백만원)	고발건수
94	1,317	1,128	189
95	4,916	4,652	264
96	10,939	10,627	312
97. 7월	7,244	6,877	367

## 위배사료 행정처분사항

부산광역시장은 '97년도 2/4분기중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사료검사결과 위배사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 행정처분내역

업 체 명	대립수산(주)	
성 분 등 록 번 호	27-2	
사 료 명	어분(중)	
제 조 일	'97. 3. 14	
검 사 일	'97. 4. 17	
위 배 성 분	조회분	
등 록 성 분 량	28.0% 이하	
검 사 결 과	1차	32.89
	2차	31.34
과 부 족	1차	4.5초과
	2차	3.0초과
처 분 내 역	과징금 100천원	

※ 검사장소 : 푸리나코리아 군산공장

## 축협중앙회

### HACCP 해설집 발간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개념과 안전축산물 생산요령을 담은 해설집 6천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대한수의사회

### 전국 수의사 테니스대회 개최

대한수의사회(회장 이길재)는 수의과학회관 기공식을 자축하고, 수의직무의 활성화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약사법의 개정과 수의과대학 6년제로의 연장을 위한 교육법의 개정 등 수의사들이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수의사가 하나로 뭉치고 단합하는 계기로 마련코자 지난 25일 제8회 수의사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 지부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우승은 대구지부가 차지하였다.